

[선교 매트릭스]

TMTC 15기 이준희

제1장 선교적 교회

- 선교적 교회의 특징 중 다섯 번째, 선교방식은 성육신적이다.
 -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방식이다.
- 교회는 선교가 본질이다. 교회와 성도는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강조함과 동시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개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한다는 넓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성육신적인 선교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하겠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8장 선교사와 재정

- 선교사의 재정에 대한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것은 구약의 레위 지파와도 같은 방식으로 선교사들의 재정이 충당되기 때문이다.
- 선교사의 재정을 채워주는 일은 교회 공동체일 뿐 아니라 성도 각자들이다.
- 선교에 참여하는 책임은 하나님에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책임을 자원함이나 혹은 선택사항으로 바꾸어 버렸기에 선교사는 재정적으로 부족하게 살고 있다.
- 선교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 자기 일을 대신 해준다면 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준다.
- 선교 후원금도 선교사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한다. 후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사는 선교사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
- 선교사들은 후원금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을 책임이 있다. 선교사에게 재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그 선교사역이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철학과 맞을 때, 그리고 선교사가 성실하고 정직한가 하는 기준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
 -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생각과 연결하여 재정적 후원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정적인 후원의 책임, 그리고 교회와 개인 성도들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섬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교회의 선교지원비 비중 또는 개인의 선교에 대한 재정적 헌신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17장 선교사의 생활과 삶

- 예수님의 성육신이 삶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처럼 선교사의 삶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삶과 사역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는 선교의 주요소인 것이다. 곧 삶이 선교이다.
- 한국의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는 존경하지만, 교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말과 글의 복음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삶과 생활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이다.
- 진정한 선교사는 그의 삶을 현지인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사역의 비밀, 삶의 비밀이 없어야 한다. 돈과 시간 사용에 대한 비밀이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가정을 오픈할 수 있어야 한다.
 - 선교사의 삶은 지금 우리들의 삶과도 동일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복음과 진리와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교회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계(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복음화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면, 우리도 가진 돈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중요한 사역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가 제일 우선적인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필연코 국내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밖에 있는 지역들에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전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우리들이 이 말씀과 같이 순서를 제대로 되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받으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목적이데 도달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가는 길은 순탄하게 될 것이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더하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어떤 한 기관에서 감당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 속한 일이다.

3.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전세계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는가?

당신 자신이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당신 대신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분부는 실행되어야만 하며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다.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야만 한다. “밭은 세상”인 이상 우리들이 세계의 전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 사역은 하나이며, 그 일은 한 모퉁이씩 한 모퉁이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성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두 번째 은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첫 번째 축복도 받지 못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이것은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다.

6. 교회는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데 왜 실패했는가?

첫째 복음의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와 거짓 종교, 그리고 공산주의이다.

둘째 우리의 강조점이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선교에는 학위나 졸업 증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셋째 닫혀진 문들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닫혀 있는 문으로부터 돌아서서 열려있는 문으로 차례차례 들어갔다. 어디든지 열려 있는 문이 있을 것이고 그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닫혀 있는 문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열어주시도록 남겨두자

넷째 우리가 충분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일꾼이 부족한 데 있다.

다섯째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꾼들이 준비되고 사역자들은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선교사와 그의 사역을 돕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지인들이 하도록 놓아두면 된다. 그 다음부터 그 일은 자급적으로, 자치적으로, 자전 (self-pro-pagating)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바울 사도의 방법은 더 이상 개선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사신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선교를 위해 헌금하도록 가르치셨는가?

믿음의 작정헌금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일이다. 어떤 사람도 그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